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2024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3조)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목 차

I. 출 장 개 요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2
III. 심 사 자 료	3
- 출장배경 및 목적	3
- 방문시설과 타당성	5
IV. 기대효과	20
V. 국가 소개	25
VI. 출장 일정	28
VII. 출장단 구성	30
VIII. 사전 준비과정	31

2024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3조)

방문 목적

- ▶ 북유럽국가의 선진 교육시스템과 사회친화적 청소년 정책 관련 벤치마킹
- ▶ 친환경 도시정책의 방향, 환경기초시설 운영,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사례 조사 등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도시계획 적용 가능성 검토
- ▶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산단 클러스터, 도시재생 성공사례 등 다양한 공공 연계 방안 모색

I 출장개요

- 기간 : 2024년 05. 07(화) ~ 05. 15(수)/6박 9일
- 장소 :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2개 도시 관련기관 방문
- 주제
 - ▶ 북유럽 선진 교육시스템 및 사회친화적 청소년 정책 벤치마킹
 - ▶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친환경 도시정책 탐구
 - ▶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도시재생 및 산단 클러스터 성공사례
- 인원 : 10명 (의원)
- 출장경비 : 1인당 5,600천원 (자부담 1,600천원)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국외항공운임 - 실비
 - ▶ 지급기준(일비·식비·숙박비)

[단위: 1인/USD 1347.50원 / '24. 3. 28. 하나은행 기준]

구분	총계		일비			식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계	1,564	2,106,710	9	30	270	8	59	472	6	137	822
가		-			-			-			-
나	1,564	2,106,710	9	30	270	8	59	472	6	137	822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국가별 등급 : "나" 등급(핀란드 헬싱키, 스웨덴 스톡홀름)

○ 출장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의원 : 4,000,000원 × 10명 = 40,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출장방법

▶ 용역 수행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

- 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공식 기관방문 섭외, 현지 교통, 보험 가입
통역·안내 등 전반

▶ 방문기관 선정 : 출장 참여의원 선정(간담회) ⇨ 현지 코디 안내

- 의회사무국 : 방문 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등 공문 시행

- 용역업체 : 기관방문 사전협의, 방문대상자 및 보조자료 준비, 현지 전문
코디 활용 진행 등

II

심사근거 및 절차

1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55호, 2023.4.21.)

2 추진계획

- 출장이지 및 테마 선정 : 완료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 : 4. 1(월)
- 진행업체 모집공고 : 4. 2(화) ~ 4. 12(금) / 10일 이상
- 서류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4. 15(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4. 17(수)
- 선정업체 발표 : 4. 18(목)
- 계약 체결 및 협상 : 4. 19(금) ~
- 사전설명회 개최(2회) : 4. 19(금) ~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 : 5. 7(화)

① 출장배경 및 목적

-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학교-도서관-청소년센터가 필수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도시정책의 여러 사례들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키우는 것이다’ 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또한 변화해야 할 것임.** 전주시 청소년센터 및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들은 청소년들의 희망에 따라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 청소년지도자들의 활동과 재정지원이 보장되어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창조적인 그린 아이디어를 곳곳에 배치하여 실행하고 있는 북유럽 **친환경 도시정책 선진 사례**를 통한 전주시 친환경 도시정책 개선 및 계획 수립시 활용 기대.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정책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무 담당자의 선진 전문기술을 경험·공유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 기술과 행정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 환경과 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주거복합 도시를 실현한 사례가 전주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환경친화적 폐기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하마비의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 녹색과 생태도시를 기본원칙으로 특화된 복합도시개발 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미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녹색집합건물을 완성해

가고 있는 사례 등 환경-에너지-교통-청소년 통합정책 및 민관협력 노하우 등 전주시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광역도시로의 정착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

- 최근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생태도시, 미래형 녹색도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전주시의 미래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북유럽 친환경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유명 대학 연구소, 산학협력 연구소, 벤처단지과 기업 방문 등 공장지대를 문화공간, 시민 친화시설로 탈바꿈 시킨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현장을 탐방하기 위함.
- 지역 차원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의 허브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회사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을 구축, 인재를 영입하기에 유리한 환경,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어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단 클러스터 성공 사례들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핀란드 헬싱키, 스웨덴 스톡홀름 등 북유럽 도시의 사회친화적 교육 시스템 및 청소년정책, 친환경 도시정책 방향 관련 탄소중립 친환경 시설, 친환경 도시계획, 산학연관 협업시스템을 통한 산단조성 등 각 도시별 전반적인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에 대하여 사례조사 및 현장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전주시에 접목해야 할 요소에 대한 방향 탐색, 발전적인 정책개발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방문시설과 타당성

1. 선진교육시스템 및 사회친화적 청소년정책 사례

- (핀란드)헬싱키 청소년 전용 아난탈로예술교육센터(Annatalo art center) 및 헬싱키 청소년센터(Youth : Nuorso)



- 아난탈로 아트센터는 1886년에 세워진 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1987년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예술교육센터로 헬싱키시에 의해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여가부의 산하기관 소속으로 운영됨. 5년간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예술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는 세계적으로 폐교를 활용한 성공사례로 유명한 기관임.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학생들에게 예술을 경험토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음. 시각예술, 연극제작, 음악 리사이틀, 댄스 공연과 다양한 예술을 직접 배우고 예술가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전시하는 등 센터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공간 그 이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함.

- 헬싱키 청소년센터 nuoriso(누오리소)는 음악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센터이지만 교과학습 멘토링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헬싱키 인구 50만명 중 청소년 인구는 3만명 수준이나, 청소년 담당 공무원은 400명 규모이며, 청소년 예산 규모는 700억에 이를 만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헬싱키에는 12개의 청소년센터가 운영 중이며 헬싱키시의회는 한 부서인 청소년부가 파견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 학교 신축시 학교/시립도서관 / 청소년센터가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예산투자를 해야 함. 청소년센터는 모두 무료 회원제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센터의 프로그램과 예산, 시설 등을 직접 선택하여 운영한다는 특징, 헬싱키의 청소년 정책은 학생상담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예산편성 및 시설 운영이 이루어짐.

○ (스웨덴)스톡홀름 프리스푸셋(Fryshuset) 청소년활동진로지원센터



- Fryshuset는 사용하지 않는 냉동창고(프리스푸셋)를 리모델링해서 1984년 개소, 청소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처음에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운영, 현재는 청소년 복합체육공간을 기반으로 청소년 복지와 관련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청소년센터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

- 민간 시민단체인 YMCA가 초기부터 운영하였으며 전임 인력은 약 480~550명 정도이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1,000~1,200명 정도임. 운영비의 구성은 스톡홀름시 35%, 정부 5%, 나머지는 NGO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음.
- 대상은 12~15세의 의무교육 과정의 학교와 15~18세의 고등학교 과정 운영. 출발부터 청소년들 각 개인에 맞는 모티브를 동기화해서 충족시켜 주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합공간과 학교의 체계로 운영됨.
-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 과정을 따르지만, 프리스푸셋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 특별 활동들은 모두 정규 커리큘럼 외 시간에 운영됨. 프리스푸셋의 기본 이념 중 하나는 정규 교과과정에서 흥미를 잃은 학생에게 흥미를 되찾아 주는 것임.
- 체육 활동, 대중음악 프로그램, 직업과 연계된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 운영, 다른 기관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예; Lugna Gatan(안전한 거리) 프로젝트),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방과 후 시간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와서 체육시설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함.
- 스웨덴은 교육예산이 GDP 대비 6.46%로 유럽에서 최고로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대학 등 고등교육과정이 나이와 수학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나 열려있는 순환적 평생 교육 시스템임.
- Vasby Promotion의 중학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PRAO) 운영사례, 할 일 없이 노는 청소년을 구제하고자 설립된 청소년진로 직업소개센터(Jobbtorg Fokus Unga Globen), EU프로젝트로서 20-29세 실업 청년 구제 프로그램, 기술직업 고등학교와 스웨덴중공업 Scania기업 연계, 청소년활동 진로지원센터 등 스톡홀름의 직업교육과정이 매

우 특별하며, 실무전문가의 설명과 현장방문을 통한 전주시 교육시스템에도 자유학기제, 대안학교, 진로체험 활동 관련 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 (핀란드) 에스푸 청소년 직업학교(Innoomnia)/(스웨덴) 읍살라 미래학교(Futurum scholan)



- 핀란드 에스푸에 위치한 청소년 직업학교(옵니아)로 2011년에 개소.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공간을 마련함. 직업학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전체 공간을 정글 개념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였으며, 옵니아에서 만들었으나, 기존에 있던 옵니아학교와는 차별적인 학교로 출발함. 청소년부 교사가 700명 정도이며, 성인의 단기 코스에 300명 정도로 약 1,000명이 있음. 운영비는 시, 정부, EC(Eu Community)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예산 중 90% 이상을 Espoo시에서 지원함.
- 프로그램 : 전통적인 직업학교의 목공과, 철강과 등의 직업교육이 아닌 프로젝트 방식의 직업교육 실시,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으며, 학교 교사, 회사, 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스파실, 뷰티샵, 웰니스센터 등의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일반인이 직접 샵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습득함.
- 프로그램 운영의 예: ‘페르모’ 라는 회사가 식당을 운영 중. 이 식당은 외부의 회사 등이 이용하기도 하므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습하면서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함. 9월에서 5월까지 실습함. 키친, 서

빙, 요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습이 진행됨, 학생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해 봄으로써 카페테리아에서 요구되는 직장 경험을 하게 됨.

- 현재 정규 학생만 1만명, 단기코스 학생 포함 3만명의 학생이 있음. 중도탈락율이 거의 없음. 청소년 진로에 관한 정식통계는 없으나, 대체로 폴리텍, 옴니아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취·창업을 함.
- 취업 연계의 예 : stick chess를 개발해서 수업에 도입함. 스틱 체스는 규칙이 단순해서 쉽게 익히는 게임으로 폴리텍에 프로젝트를 제시장성을 파악하여 상품화하기도 하였음.
- 미래학교(푸투룸 스콜라)는 스웨덴 읍살라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학생들이 미래세대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의 교육이념, 학교 공간에 부여한 학교로 교육철학은 학교의 이름과 같이 늘 미래 지향적 교육에 비전을 두고 있음.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운영 경비는 일반 공립학교와 같이 학교가 속해있는 지자체에서 지원. 의무교육체제이므로 스웨덴의 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무료로 운영, 학부모의 부담은 없음. 스웨덴 일반학교(300~400명)약 보다 많은 학생수가 재학(약 960명) 교육 전문성을 갖춘 수석 교사가 다수 있음.“pair coaching“ 실시, 일반 교사의 교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석교사와 페어코칭을 실시. 교사 간 수업 관련하여 토의하고, 각자의 수업을 모니터링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Including’ (통합)에 대한 교육을 모든 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 교우관계 등에서 모든 학생들이 뒤처짐 없이 그룹에 포함(include) 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 초기 무학년제 → 현재 그룹으로 운영. 미래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년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수업을 하였다가 최근의 스웨덴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무학년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룹으로 운영함.

-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 3그룹(6~9세/10~12세/13~15세)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 각 그룹 안에도 학년이 구분되어 있음. 때론 시간별, 주제별, 다른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 프로젝트 수업 실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매주 2-3시간 정도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시간(국가 시스템에 의해 지정)을 활용함.
- 학습에 조력하도록 설계된 교육적 공간, 무학년제의 시스템에 맞춰 디자인된 공간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 및 배치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오후 프로그램 운영 중임.

2. 친환경 도시정책 사례

○ (핀란드)헬싱키 에코비키(Eco Viikki), 친환경 모범도시



- 헬싱키는 탄소배출감소 및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통 및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으로의 실천 등 친환경 도시국가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에코-비키는 과거 헬싱키의 중심지에서 스웨덴과 러시아의 핀란드 점령을 기점으로 방치된 자연보전지구로 ‘헬싱키 환경 아젠다 21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보존하는 친환경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됨. 신재생에너지 적극 이용, 화석연료 제한, 농산물 자급자족 등 3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음.
- 주거복합도시 비키는 사회적합의를 위해 주민-환경전문가-공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여 신기술과 생태환경을 접목, 핀란드 최초

의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를 조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가 부착된 아파트를 쉽게 볼수 있음.

- 건축물, 생활용품, 먹거리까지 친환경 정책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각 마을마다 재활용 마켓과 분리수거함이 모여있는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쓰레기 배출량이 적음.

○ (스웨덴)생태환경도시 하마비 웨스타드(Hammarby Sjostad)



- 스웨덴 하마비는 1992 ~ 2015년(25년) 스톡홀름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역으로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친환경도시 정책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축함. 규모는 200ha(계획인구 25,000명)에 스톡홀름의 주택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형태의 모델 구축, 친수자원순환형 생태학적 계획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스톡홀름 시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스웨덴 교통부를 중심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개발함.
- 하마비는 스톡홀름 시 외곽에 위치한 공장지대로 제조업 쇠퇴와 설비 노후화로 산업기능을 상실하면서 도시기능 또한 쇠퇴하면서 항구의 선적작업 및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질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하여 외면을 받던 지역임.
- 폐기물 수거·운반과 관련하여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배

출하면 별도의 운반시설이 필요 없이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지하배관을 통해 2km 떨어진 집하장까지 자동으로 이동하게 됨. 특히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 시설에서는 그물(망)을 사용하여 조류·고양이 등의 동물 배설물로 인한 세균감염을 차단하고 있음.

-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폐열, 쓰레기 등을 자체 시설로 정화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등 도시 전체가 에너지, 물, 폐기물이 순환하며 재활용되는 자원순환모델로 구축되어짐.
- 한편, 하마비 단지 외각에 존재하는 기존 소규모 공업시설들은 유지하면서 주변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계획하여 자연환경에 밀접한 주거공간을 형성함. 녹지가 많고 차량 통행이 매우 적어 주택수요를 충족하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임.
-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 도시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로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교통체계, 쓰레기·오수 순환시스템 등 친환경적 정책의 좋은 시사점이 있음.

3.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및 산단클러스터 활성화 사례

○ (핀란드) 스마트 칼라사타마 (SMART CALASAT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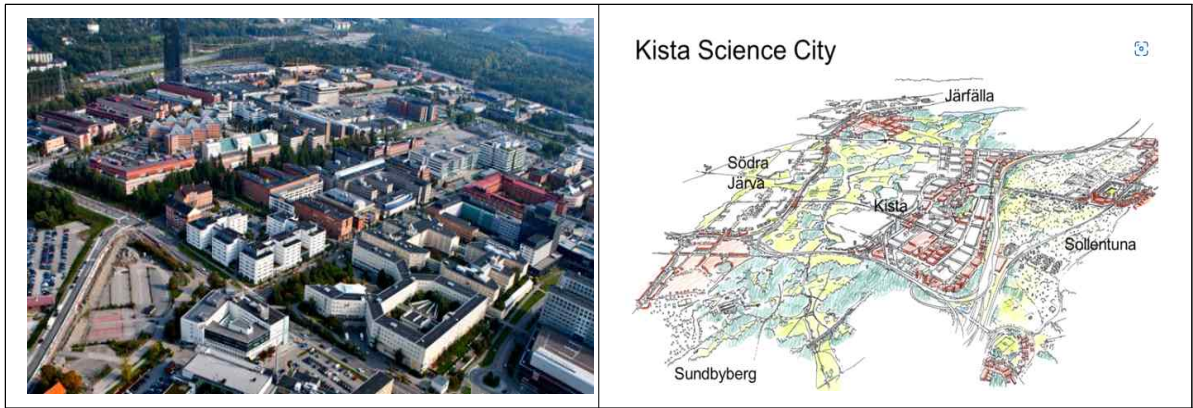
- 유럽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로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 지구는 쇠락한 공장들이 들어선 헬싱키 북부의 항구로 헬싱키 도심의 증가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로 새롭게 개발됨. 특히 시민

참여에 의한 리빙랩이 추진되면서 칼라사타마는 모범적인 스마트시티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핀란드어로 ‘고깃배 항구’ 라는 뜻의 이 지역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 이전에는 쇠락한 공장들이 들어선 헬싱키 북부의 항구였으나 우리나라 분당 신도시의 10분의 1 수준인 1.8km²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시설물의 설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운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면서 스마트시티가 됨.
-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시민 참여에 의한 리빙랩 추진 방식으로 칼라사타마의 시민들은 리빙랩을 통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 사무실, 학교 등 모든 공간을 대여 가능한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플렉시 스페이스 (Flexi Space), 무인자율주행버스 소호요아(Sohjoa)와 센서블 4(Sensible 4) 등의 리빙랩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거주민 3,000명 중 1,200명이 실험에 참여. 이러한 리빙랩은 시민으로부터 도시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받아 사업화를 시행하고 성과를 피드백하는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유럽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방식과 유사하지만 칼라사타마의 리빙랩은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이 잘되어있음.
- 칼라사타마에는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혁신가클럽(Innovators’ club)’ 은 주민,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언제든 수시로 모여 칼라사타마의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도입 여부로 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갖는 것으로 단순한 기술 전시장이 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혁신가클럽이라는 시민협의체를 통해 결정짓는 구조임. 실제로 혁신가클럽에

제기된 제안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 정부나 시에서 바로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 지방정부 주도로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로, 산학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1980년대부터 산학 협동체인 사이언스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지역 내 대학, 연구소와 기업 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왔으며 북유럽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음.
-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북서쪽으로 20km에 위치, 40년의 역사를 지닌 스웨덴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무선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분야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입주해 있는 IBM, 텔리아, HP, 모토로라, 노키아, 시스코, 오라클, 컴팩, 지멘스 등 무선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컴퓨터공학연구소(SICS), 에크레오 연구소(Acreo AB), IT연구소(SIITTI) 등 다수의 국책연구소들이 활동 중임.
-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장이었지만, 군사훈련장의 이전 이후, 이 곳은 기업도시로 발전해나가게 됨. 1976년 스웨덴의 최대 정보통신기업인 Eriksson이

시스타에 입주, IBM이 따라서 진출하면서 정보통신산업 기술이 발전하게 될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1980년대까지는 이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거래 관계가 강한 산업도시의 성격을 가졌지만 1985년 네트워크 중개기관 일렉트럼(Electrum Foundation)이 설립되고, 스웨덴왕립대학의 마이크로웨이브연구소가 일렉트럼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IT대학이 운영되기 시작하며 사이언스 파크 형성됨. 1990년대 말부터 주거, 문화, 레저시설을 갖춘 첨단도시를 지향하면서 랜드마크 시스타 타워를 건설하고, 지하에 쇼핑, 문화시설을 갖춘 시스타 갤러리아 운영하고 있음.

- Eriksson의 진출, 그리고 유럽 표준이 된 GSM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의 개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스웨덴 정부와 스톡홀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장 요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스웨덴의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던 Eriksson의 진출에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따라서 입주를 결정하게 됨.
- 2000년대 초반 IT붕괴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린 적이 있었지만 Eriksson이 유럽표준의 무선통신기술을 개발, 특히 블루투스(Bluetooth)기술은 시스타 클러스터가 만들어낸 대표 기술이며, Eriksson은 블루투스 기술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노키아, IBM, 인텔 등과 협력하였으며, 스웨덴왕립공대의 기초연구와 인재를 적극 활용하며, 합작회사 소니-에릭슨을 통해 출시하는 벤처기업 스피리어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함.
- 스웨덴정부는 에릭슨과 텔리아가 공동개발한 스웨덴 통신기술이 북구, 유럽, 세계표준이 되도록 국제표준화를 지원했으며, 스톡홀름 시, Eriksson, Sweden이 1988년에 설립한 일렉트럼은 협력지원센터로 산학협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시스타의 발전을 도모함.

○ (스웨덴) 읍살라대학 혁신센터



- 읍살라는 읍살라대학과 스웨덴농과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이뤄 산학정 클러스터를 형성함. 1900년대 중반까지 인쇄업, 기계제조, 철공업 등 공업이 주를 이뤘던 읍살라는 후반에 접어들면서 첨단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변화에 힘입어 1998년 지역대학, 지방정부, 기업들이 스투스(STUNS)라는 재단을 조직했고 읍살라 지역을 생명과학에 특화된 지역으로 개발 추진하기로 함.
- **읍살라 생명과학단지** 추진에는 1990년대 후반 경기침체 등 전체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읍살라와 대학, 스투스는 협의를 거쳐 200여개 기업 지원, 경영활동, 창업자금, 사업파트너 매칭, 매출증진,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기술개발에만 집중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여 현재의 ‘**읍살라 혁신센터(UIC)**’ 만들게 됨.
- UIC는 국내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기관으로 현재 스투스가 25% 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읍살라(지자체), 스웨덴 농과대와 읍살라대 지주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UIC 프로그램 출신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됨.
- UIC에는 현재 대학, 연구소, 기업, 투자회사, 특허지원 기관, 국제교류지원 기관, 창업지원 기관 등의 구성 주체가 한 곳에 집적해 같은 공간을 공유함. UIC에서 1년에 개발되는 아이템만 250여개, 우주부터 의약까지 다양한 분야의 80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음.

- 창업보육시스템은 총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실행할 지를 돕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를 기업(파트너사)에 연결해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이후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 각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시켜주는 단계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산학연관 시스템이 잘 되어있음.
- 스튜드가 혁신센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주주 같은 역할이라면 UIC는 읍살라의 혁신적인 인재들이 지역에 그대로 머물며 창업을 도모하고 아이디어 개발을 이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무엇보다 대학의 활발한 연구와 아이디어가 혁신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의 역할과 인재 영입을 연결해주는 UIC 협업시스템이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 작동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스웨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됨.

4. 산단재생(도시브랜딩) 성공 사례 견학(시설탐방)

○ 아라비안란타(Arabianranta) / 오타니에미(Otaniemi) 과학단지



- 아라비아란타는 헬싱키시 최초로 공장이 들어섰던 지역이며 한때 헬싱키시를 대표하는 공장지대였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명성과 생산성이 떨어져 도시가 쇠퇴되었으나 헬싱키시는 아라미안란타의 전

통이자 고유자산인 도자기와 세라믹에 핀란드의 정보통신 기술력인 IT와 디자인을 결합하여 아라비안란타만의 역사성을 살린 주거환경 및 교육, 연구 공간 및 디자인 지역으로 재탄생하며 도시개발 모델을 상품화하기 위해 리빙랩 개념을 도입한 사례.

- 아라비안란타의 전통이자 고유자산인 도자기와 세라믹에 핀란드의 정보통신 기술력인 IT와 디자인을 결합하여 아라비안란타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도시 고유의 역사성을 살린 거주 지역으로 만들어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최첨단 업무가 가능하고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살기좋은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동측을 주거, 중앙을 업무, 남측을 디자인 관련 교육·연구로 구분하되 이들을 첨단 IT 기술과 연계해 통합된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 도시의 디자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물 신축시 총 공사비의 1~2%를 따로 예술장식품 설치비로 규정하고 있고 15년 동안 건축, 조각, 도자기, 그래픽 콘크리트, 사진, 그림, 모자이크 및 조명 작품, 예술 정원 및 커뮤니티 아트가 아라비안란타의 계단이나 통로, 공동 구역, 안뜰 및 공원에 배치되었고 이 작품들이 설치된 거리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대표적인 도시브랜딩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헬싱키 아트&디자인 대학을 시작으로 헬싱키 폴리테크닉 스타디아·헬싱키시립기술대학(오디오&비주얼) 등 10여 개의 예술 및 디자인 관련 기관들이 소재해 있으면서 IT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디자인 등 첨단 분야에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 결과를 지역 업체에 제공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디자인 제품 등의 공장과 전시장, 판매장을 지역 안에서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역이나 외국인 구매자들을 유치하는 등 이런 정책의 효과로 애플을 비롯한 다양한

IT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핀란드의 대표적 생활도자기 회사인 아리비아와 덴마크의 유명 디자인 조명회사인 루이 폴 루센 등이 이 지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디자인 상품 쇼핑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 아라비안란타의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유 방식과 유형이 공존한 형태로 민간분양, 공공임대, 학생용주택, 장애인·연금생활자 등을 위한 주택단지도 별도로 존재해 거주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고 주거지 사이에는 녹지공간과 놀이시설을 도입해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오타니에미**는 핀란드 최대 클러스터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적인 생산과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창업지원을 하고 있음. 계획된 창업교육 덕에 매년 500개가 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40~70개 창업, 200개 이상 특허 창출을 올리고 있는 오타니에미단지는 '학생 창업의 산실'로 불리는 배경에 바로 **알토대학**이 있음.
- 핀란드 헬싱키 서쪽 에스푸 지역에 북유럽 최대 하이테크 창업 인큐베이터 단지 '오타니에미(Otaniemi) 사이언스파크'는 세계 IT 신기술 변화를 가장 빠르게 수용하면서 핀란드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키아 본사와 코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신생 창업기업 등 8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알토(Aalto)대학과 핀란드국립기술연구소, 국립기술개발청(Tekes)도 모여 긴밀하게 산학 융합 시너지를 내고 있음.
- 이 학교는 2010년 헬싱키공대와 헬싱키디자인예술대, 헬싱키경영대 등 3개 대학이 합쳐져 탄생해 디자인과 비즈니스, 공학의 융합교육을 본격 실험해 왔으며, 특히 알토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ACE) 중심으로 잘 짜여진 창업육성 시스템에 따라 학생들은 디자인팩토리, 벤처거라지

(Venture Garage), 이노폴리(innopoli) 3단계를 거치면 자생력을 갖춘 기업인으로 성장시켜주는 시스템임.

- 2단계 벤처거라지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아이디어를 갖고 매월 약 750유로의 금전적 지원과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 교육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숙성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직원이 늘면 3단계 벤처들이 집적된 공간 이노폴리로 옮겨 일하게 되고, 산업계 베테랑과 교유할 수 있는 주말캠프 '창업 워크숍'과 신규 기업가 훈련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전 세계 창업준비생들이 모이는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사우나'가 6주간 열려 해외 창업가들과 교유할 기회를 제공 하는 등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창업교육을 정책목표로 삼아 진행하고 있음.

IV

기대효과

1. 교육·청소년정책과 도시계획

-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선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센터가 운영되듯이 획일적인 학습위주의 교육경비지원이나 청소년예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행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나라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법제화하여 이들을 독립적인 작은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우리는 아직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

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가장 말할 권리가 있는 교육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은 ‘청소년 인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표현 자유보장, 집회 자유보장, 신체적·정신적 침해로부터 보호 등 개선 해야 될 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청소년활동을 이해해야 하며, 성장기 청소년활동 자체가 학교 교육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 핀란드는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학교-도서관-청소년센터”가 필수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직접참여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듯이 전주시 청소년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획일적인 학습 위주의 교육경비지원 외에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 행정의 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스웨덴과 핀란드의 청소년 복합문화 시설과 직업교육기관 등 방문기관 특성을 분석·검토하면서 학교-도서관-청소년기관이 도시계획에 필수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 등 전주시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 특히 전주시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시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전주시 대안학교의 부재 등 전주시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입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북유럽의 환경 시설 및 친환경 도시정책

- 북유럽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도 일맥상 통하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4국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스웨덴 스톡홀름은 1972년 세계인간환경회의 개최, 국제적인 환경보호 원칙인 ‘**스톡홀름선언**’ 이 공포된 곳으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도시개발에 반영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음. 스톡홀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밝힌 선언으로써 미래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하마비**는 공장지대를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한 선진사례인 만큼 전세계에서 방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건축물 설계 등 실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증가,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 하마비 주거단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전주시의 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음.
-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입주시 기밀성 테스트 등 에너지 절약효과 확인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건축자재 또한 고성능 외단열 시스템 및 고성능 순환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건축 방식으로의 전환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 녹색성장과 도시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반드시 사전에 유기적인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녹색성장과 친환경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환경정책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것임.

○ 여러 친환경 도시정책 성공 사례에 대한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전주시에 맞는 친환경 도시계획 및 기후환경 프로젝트 적용 가능성 전략 실행에 앞서 전주시의 친환경적 정책 마인드와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된다면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함.

3.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및 산단클러스터 조성

- 형태나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첨단사업단지 조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의 허브를 구축 사례,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분석,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UIC 사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복합단지로서 테크노파크 등 선진국 형태의 산업 클러스터(집적시설) 사례 탐방.
-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스마트시티는 우선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시민, 스타트업, 기업, 정책가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모니터링, 피드백 등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기업육성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혁신모델을 참고하여 전주시에도 구도심, 노후산단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 방향과 방안을 검토.
- 전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시민참여형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양 기관의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주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것을 사

업의 목적으로 삼고 주민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음.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지역 관·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해, 도시·주택, 교통·차량 등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전략을 구체화,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등 전반적으로 참여자(기업, 지자체, 시민) 간 협력을 통해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

- 5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산단으로 전락한 전주팔복산단의 산단 정책은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의 재배치가 지역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동인)이 될 수 있도록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별 규제의 차등화,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위기지역 규제 정책도입의 필요성 등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분석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집적지로 개선되어 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함.

- 전주시의 경우 지역경제 위기 및 쇠퇴 상황에서 산업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갖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산업구조 재편 전략 발전 전망에 대한 혁신생태계조성을 위한 지역 R&D정책,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혁신투자 및 혁신정책의 역할 지역차원의 기술 혁신역량 및 혁신 생태계조성 등 위기 상황에서의 지역경제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주시의 주력산업과 주력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공단의 현황 파악 및 팔복 노후산단 쇠퇴 원인과 대응전략 분석, 산업별 미래전망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V

국가소개

1

핀란드(Suomi)



- 기본현황: 핀란드공화국(약칭:핀란드)은 북유럽 노르딕 국가 중 하나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오른쪽에 위치,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 후 1919년 핀란드 헌법이 도입됨.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반면 인구(555만 9,188명)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정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에 의원내각제 가미), 6개주, 3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언어는 핀란드어(94%)와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수도인 헬싱키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진보적인 사고와 전통을 보완하여 조화로운 삶의 전형을 담고 있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평가됨.
- 경제·외교: 기존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1980년대 이후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산업 선진국으로 변화(2016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42,654 달러, 국내 총생산량은 약 2,400억 달러) 발전하였으며, 1994년 EU에 가입함. 한국과 핀란드는 1973년 8월 24일에 외교관계를 맺음.
-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별이 없으며 학교 제도는 종합학교를 9

가 매우 높은 나라이면서, 전 세계 독서율 1위의 나라임.

- 교통·사회: 2014년부터 중심가에서는 40km/h 이하로 달려야 하는 법이 생길 정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매우 강력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높은 편임. 최근 난민 사회통합 정책의 실패로 이민자 중심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
- 복지: 무상 의료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상대적인 차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모순, 한국에서도 출산·양육·여성 등 인구·복지정책을 많이 참고했지만 최근 문화 인식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최고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또한 한국의 사회적 구조가 각각 다른 현실에 맞게 재정립이 필요함.
- 교육·청소년: 9년간 의무교육, 평균 18.5세에 부모로부터 독립,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교실에서 첨단 디지털 기기를 적극 도입하여 혁신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디지털교육 방식에서 전통적인 학습방식으로의 교육정책 변화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이 선행되어야 디지털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교육정책으로 변화함.

VI

출장일정(안)

일차 (요일)	방문지역	주요일정	벤치마킹 사항	비 고
1일차 (5/7.화)	핀란드	○ 인천 → 헬싱키 (핀에어 직항)		
2일차 (5/8.수)	(스웨덴) 스톡홀름	○ 헬싱키 반타국제공항 도착 →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	○ 혁신적인 도시개발정책 청취 ○ 스톡홀름의 하수처리서비스, 헨리탈 하수처리장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견학 등 ○ 세계적인 수변 친환경 녹색도시, 진공쓰레기수집시스템, 빗물관리, 옥상녹화, 친환경교육센터 등	
		○ [공식방문] 미팅 스톡홀름 시청산하 인포메이션센터 방문 ○ [공식방문] 미팅 헨리탈 하수처리장 (Henriksdals reningsverk) ○ [시설탐방] 하마비 웨스타드 (Hammarby Sjöstad)		
3일차 (5/9.목)	(스웨덴) 스톡홀름	○ [공식방문] 미팅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Kista Science City) ○ [시설탐방] 스톡홀름 재단 (Stockholm Science City Foundation)	○ ICT클러스터(북유럽실리콘밸리) ○ 친환경도시혁신지역 지원체계	
4일차 (5/10.금)	(스웨덴) 스톡홀름 웁살라	○ [공식방문] 미팅 프리스푸셋(Fryshuset) 학교 ○ [공식방문] 미팅 미래학교(Futurum scholan) 도서관 탐방 ○ [시설탐방] 웁살라 대학 혁신센터(UIC) 감라웁살라 견학	○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및 냉동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 스웨덴 대학 연구소 산학연 연계 지원시스템	글로벌 교류협력 도모
	〈항공편 이동〉	○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 → 헬싱키 반타 공항		

일차 (요일)	방문지역	주요일정	벤치마킹 사항	비 고
5일차 (5/11.토)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탐방] 스마트 칼라사타마 (SMART CALASATAMA) ○ [시설탐방] 오타니에미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싱키 스마트시티 대표 모델 지역 ○ 산학연 협력시스템, 과학 혁신단지 	
6일차 (5/12.일)	(핀란드) 헬싱키 에스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 미팅 아난탈로 예술교육센터/ (Annantalo Arts Centre) 청소년센터(nuoriso) - 핀란드 교민, 학부모, 교사 간담회 등 ○ [시설탐방] 에스푸 직업학교(옵니아) (Innoomnia Espoo) ○ [공식방문] 미팅 에스푸시 환경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청소년 정책 ○ 스타트업사우나(회사) 등 창업위주의 정책, 혁신적인 도시정책 	글로벌 교류협력 도모
7일차 (5/13.월)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 미팅 헬싱키 시청 환경센터/ 환경아젠다21 프로그램 ○ [시설탐방] 에코비키(Eco VIIKKI) ○ [시설탐방] 아라비안란타 (Arabianran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도시정책 면담 ○ 친환경 주거복합단지 에너지건물 탐방 ○ 재개발 산업지역 	글로벌 교류협력 도모
8일차 (5/14.화)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탐방] 마켓광장(카우파토리) 등 ○ 헬싱키 → 인천 (핀에어 직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도시건축물, 지역활성화 사례 	
9일차 (5/1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VII

출장단 구성

○ 구성인원 : 15명(의원 10, 의회 3, 집행부 2)

연번	직책	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성별	비고
1	단장	이남숙			여	복지환경 위원회
2	부단장	최서연			여	〃
3	단원	이병하			남	〃
4	단원	한승우			남	〃
5	단원	장재희			여	〃
6	단원	박형배			남	행정 위원회
7	단원	최명권			남	〃
8	단원	이보순			여	〃
9	단원	김세혁			남	〃
10	단원	신유정			여	문화경제 위원회
11	직원	김병용			남	복지환경 전문위원
12	직원	한은경			여	공보팀
13	직원	나혜원			여	입법정책 1팀
14	직원	이성순			여	자원순환 과장
15	직원	배상열			남	자원시설 운영팀장